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식

Gwangju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News

[HOT ISSUE] 제2회 살구와 함께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날

[서비스원사람들] 당신과 나의 즐거운 일터

[사회서비스이야기] 사회복지 현장의 노무






사서로운 : **사회**서비스원의 새**로운** 이야기

vol.05

발행일 2022.07.01
발행처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발행인 조호권 원장
편집인 경영기획실장
홈페이지 gwangju.pass.or.kr
전화 062.607.5200
팩스 062.607.5219
주소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0 우체국보험회관 8층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궁금하다면?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저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캐릭터 **살구**입니다.

일상에서 누리는 광주형 사회서비스 실현!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이
함께 합니다.**



제2회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날의 시작을
아름다운 목소리로 축하해준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입니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식지



제2회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날!



사회복지시설 안전지킴이



나에게 힘이 되는 사회서비스



CONTENTS

여는 글	조호권 원장	04
------	--------	----

HOT ISSUE	살구와 함께하는 제2회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날!	06
특집	선물처럼 찾아온, 광산구 종합재가센터	10

현장포착	마음을 전합니다. 나에게	12
	오늘은 늘봄의 날! 우리들 세상	14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양산 사랑으로	16
	인권문화재 오월인권길 걷기	18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20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22
	거리노숙인 특화자활사업 시작	24
	청년층의 심리정서와 건강성 증진을 위한 새로운 노력!	26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27
	코로나19 위기극복 유공자 시장표창 수상!	28
따뜻한 돌봄! 촘촘한 돌봄! 윈스톱 돌봄!	29	

서.알.못을 위한 서비스원 이야기	답은 현장에 있다	30
	돌봄지원팀이 궁금해?	32
	사회복지시설 안전지킴이	34
	서비스원 사람들	36
	당신과 나의 즐거운 일터	36
	VOICE OF GPASS - 나만의 건강관리 법	38
	광주 시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가이드	42

사회서비스 이야기	나에게 힘이 되는 사회서비스	46
	너와 나의 꿈은 '같다'	48
	사회 복지 현장의 노무	50

트렌드는 못참지 잠깐, 쉬어가세요	촌스럽다고? 이게 요즘 힙(HIP)이야!	52
	기적을 바라는 우리에게	54
	당신의 언어의 온도는 몇 도인가요?	55

ECO GPASS	살구와 함께 '으쓱(ESG)' 캠페인	56
청렴 Q&A	공직자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57
고객제안제도		58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市)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고, 코로나19에서 경험하였던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적, 양적 보완과
재가 복지와 틈새돌봄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북구·서구에 이어 광산구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더 믿음직스럽게 모두 함께 누리는 “사회서비스”

사서로운 가족 여러분, 임인년(壬寅年)이 시작된 지 엿그제 같은데 가뭄과 장마, 불볕더위라는 기후환경과 연관 있는 단어들이 자꾸만 생활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7월입니다.

올 초에 계획하셨던 일들은 차근차근 이뤄가고 계신지를 여쭙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지난 6월 8일과 9일, 두 돌맞이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날”의 행사를 이용접 시장님을 비롯한 많은 사회복지 가족분들을 모시고 성대히 치렀습니다.

기념식에서는 본원의 발전과 사회복지 유공자들에 대한 표창, 인기 연예인 김제동 씨 초청 토크쇼,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도전! 지속 가능한 광주형 돌봄을 말하다’라는 정책 포럼을 열었습니다. 또한 이튿날은 TBN 광주교통방송과 연계하여 차차차 특집 방송으로 서비스원

홍보와 사회복지에 관계되는 정보 사항을 공중파를 통해 홍보하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회복지 가족 여러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市)도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였고, 코로나19에서 경험하였던 긴급돌봄서비스의 질적, 양적 보완과 재가 복지와 틈새돌봄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서 북구·서구에 이어 광산구 종합재가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돌봄 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 역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 여성의 경제적 참여가 늘어나면서 공공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 가까이에서, 더 믿음직스럽게, 모두 함께 누리는 사회서비스’의 실현에 대해 우리 사서로운



가족 여러분도 한마음으로 고민하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고민에 광주사회서비스호는 광주광역시의 돌봄 공백 해소, 사각지대를 따뜻하게 채워주는 역할, 스마트한 복지서비스의 선두 주자 등에 우리의 역할과 방향을 맞추어 모든 임직원이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공공이 주도하여 복지이용자 중심의 패러다임을 조성하고, 복지 전달체계를 개편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개원한 지 2년, 우리 광주사회서비스호를 응원해주신 많은 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원은 150만 광주 시민을 포함한 복지시설 종사자들과 소식지 ‘사서로운’을 통해 적극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환경 또한 시대의 요구에 걸맞은 변화와 혁신을 우리에게 담당해주길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 가족 모두는 사회복지 현장과 끊임없는 교류와 소통을 통해 현안을 해결하고, 믿음직한 사회복지서비스로 따뜻한 돌봄, 행복한 일자리의 광주광역시를 만들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조 노 권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어느덧 개원 2주년을 맞이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규모를 최대한 축소시켜 개원기념식을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다양한 사회서비스분야 종사자들과 함께하여 따뜻하고 신나는 이틀이었다.

제2회 살구와 함께하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날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원장 조호권)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날을 맞이하여 6월8일 ~ 9일 양일에 걸쳐 「제2회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날 기념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이 어느덧 개원 2주년을 맞이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규모를 최대한 축소시켜 개원기념식을 진행했던 작년과 달리 다양한 사회서비스분야 종사자들과

함께하여 따뜻하고 신나는 이틀이었다.

6월 8일 기념행사는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으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김용집 광주시의회의장 등 주요 인사와 사회서비스분야 종사자 및 학계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 행사는 총 3부로 진행되었으며, 광주시립발레단과 광주시립소년소녀합창단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되었다.

1부는 숫자로 보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성과, 유공자 포상, 축사(광주광역시장, 광주광역시의회회장)순으로 진행되었고, 2부는 나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은 “나”라는 주제로 ‘방송연예인 김제동’ 토크콘서트가 진행되었으며, 3부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도전!! 지속가능한 광주형 돌봄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해외, 국내외 돌봄서비스분야 전문가를 모시고 정책포럼이 진행되었다.

특히 지금까지의 진행되어왔던 포럼의 틀을 깬 광주사회서비스원만의 색다른 정책포럼은 각 연령대별로 ‘당신에게 돌봄의 의미’를 묻는 영상 상영을 통해 시작되었으며, 박소정 교수(위성대학교)의 노인 돌봄 해외사례(미국 사례 중심), 석재은 교수(한림대학교)의 지속가능한 돌봄생태계 만들기 위한 광주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과제, 황정하 교수(전남대학교)의 지속가능한 광주형 돌봄·현실 진단과 발전과제 순으로 발표가 진행되었다.

발제자의 발표 후 광주사회서비스원만의 톡톡 튀는 ‘돌봄톡(talk)파원’을 통해 장애인, 노인, 아동, 노숙인 분야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청취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으며, 끝으로 지역주민들의 욕구에 맞은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자원연계 및 조직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광주광역시 5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업무 협약이 진행되었다.

6월 9일은 TBN 광주교통방송 ‘TBN차차차’ 프로그램을 통해 ‘따뜻한 돌봄, 내인생 봄봄’이라는 주제로 초대가수 강진씨, 김용임씨, 그리고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의 마스코트 “살구”와 함께 돌봄서비스분야 특집 방송이 진행되었다.





방송을 통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과 그리고 그동안 궁금했던 점, 사회서비스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를 소개하였고, 돌봄으로 2행시 짓기를 통해 사회서비스원 원장(조호권)은 ‘돌 : 돌(도)리도리 봄 : 봄봄’이라고 응하며 분위기를 띄우는 등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진모씨는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날을 기념한 뜻 깊은 행사 참여를 통해서 김제동님의 ‘나를 격상시키자’ 라는 좋은 강연을 들을 수 있었고, 온전한 나를 사랑하고 토닥여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았다. 또한 복지분야의 전문가분들이 모여 현재 광주 복지에 대한 현황 및 실태, 그리고 앞으로의 나아갈 부분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현장의 종사자들이 참여할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제공되었으면 좋겠다.” 라며 만족해 하였다.

조호권 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서비스 분야의 많은 종사자들과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마음이 컸다”며 “이번행사를 통해 지쳐있는 사회서비스 분야 종사자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됐기를 바라며, 일상에서 누리는 따뜻하고 촘촘한 광주형 사회



서비스 실현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2022년 5월 31일 기준으로 16개의 소속시설 및 광역사업단 운영하고 있으며, 2,574회 27,451시간의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69명 1,433회 민간 곤란 틈새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복지현장에서 공공부문 확대를 위한 긴급틈새돌봄서비스, 민간기관 지원, 국공립시설 직접운영 등의 사업을 활성화해 광주광역시 사회복지허브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제2회 살구와 함께하는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날 기념행사는 유튜브 채널(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 TBN 광주교통방송)을 통해 다시보기가 가능하다.



광산구종합재가센터는 전문교육을 수강한 15명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방문요양서비스, 긴급·틈새돌봄서비스, Io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선물처럼 찾아온, 광산구종합재가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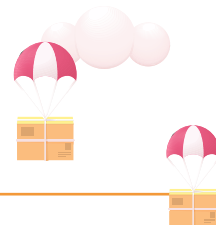
지난 4월 26일, 광산구종합재가센터의 개소로 광산구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 자리매김 할 첫 걸음을 내디뎠다.

2020년 북·서구종합재가센터가 개소한 뒤 광주에 세 번째로 문을 연 광산구종합재가센터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월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제외한 전국 사회서비스원 중,

종합재가센터의 3번째 개소는 광주광역시가 유일 무이다.

광산구종합재가센터는 전문교육을 수강한 15명의 요양보호사와 함께 방문요양서비스, 긴급·틈새돌봄서비스, IoT 기기를 활용한 비대면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광산구종합재가센터 주요사업안내

방문요양

고령 또는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분들에게 신체활동 도움 및 가사 활동 등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 : 노인장기요양 1~5 등급자

서비스내용

- 1) 신체활동지원 (식사, 세면, 구강관리, 이동도움 등)
- 2)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사회훈련 등)
- 3) 가사·일상생활지원 (식사지원, 청소, 세탁 등)
- 4) 정서지원 (말벗, 일상생활 문제상담 등)

신청절차

장기요양등급신청 → 방문조사 등급판정 → 종합재가센터 서비스신청 → 서비스제공

긴급·틈새돌봄서비스

기존 돌봄 서비스 중단 및 공백발생, 제도권 내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분들에게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합니다.

대상

- 1) 기존 돌봄 서비스 중단 및 이용 서비스가 전무한 대상자
- 2)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 서비스 이용 대기로 인해 공백이 발생한 대상자
- 3) 질병, 부상 등 기타 사유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서비스내용

- 1) 신체활동지원(식사, 세면, 구강관리, 이동도움 등)
- 2) 인지활동지원(인지자극활동, 사회훈련 등)



3) 가사·일상생활지원(식사지원, 청소, 세탁 등)

4) 정서지원(말벗, 일상생활 문제상담 등)

- 이용기간 : 월 60시간, 2개월 지원

안심+스마트 지킴이

독거가구로 홀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IoT 기기를 활용하여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대상 : 독거노인, 독거장애인 등

- 서비스 내용 : 활동량, 온도, 습도, 조도, 이산화탄소, 유기화합물 모니터링을 통해 위급상황 예방 등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당신에게 언제, 어디서나 누릴 수 있는 따뜻한 돌봄을, 민간기관이 제공하기 어려운 서비스와 제도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당신에게 틈새영역을 활용한 촘촘한 돌봄을, 지역사회와의 네트워크를 통한 사회서비스 연계와 지역 복지를 활성화 시키는 윈스톱 돌봄을...

'따뜻한 돌봄, 촘촘한 돌봄, 윈스톱 돌봄'의 슬로건으로 광산구에 새바람을 일으킬 광산구종합재가센터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광산구종합재가센터 T. 062-716-5600)



남구구립늘봄어린이집

“오늘은 늘봄의 날! 우리들 세상~”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오는 5월 5일 어린이날, 여러분은 어떤 추억이 있으신가요? 어느 곳보다 떠들썩하게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한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로는 부족했던, 그렇기에 더욱 특별했던 남구구립늘봄어린이집의 5월로 돌아가 봤습니다.

어린이날은 모든 어린이가 차별 없이 인간의 존엄성을 지닌 민주시민으로서 바르고, 아름답고, 씩씩하게 자라는 것을 고취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입니다. 또한, 어린 사람을 뜻하는 ‘어린이’라는 말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아이들에 대한 높임과 존중의 의미를 담아 새롭게 만든 말입니다. 어린이에 대한 방정환 선생님의 뜻을 늘봄어린이집과 함께 다시 한번 되새겨 보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어린이날은 1년에 단 하루, 그러나 늘봄어린이집의 어린이날은 하루로는 부족했습니다. 한 시대, 더 새로운 사람들의 놀 권리와 누릴 권리, 행복할 권리를 위한 늘봄의 노력!

행복했던 3일,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늘봄 우리들의 날~~



첫 번째 날, 늘봄 놀이공원

패밀리랜드보다 즐거운 늘봄랜드! 어린이날 하면 놀이공원을 빼먹을 수 없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늘봄놀이공원!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된 다양한 놀이기구를 자유롭게 이용하며, 긍정적인 자아가 형성되었고,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체 모니터링

사랑하는 아이가 있는 부모님이라면 항상 궁금한 것이 있기 마련이죠. 우리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우리 아이가 하루를 보내는 곳은 어떤 곳일까? 남구구립늘봄어린이집의 부모님이라면,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육전문가와 부모님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단원을 통해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그 모니터링 현장을 함께 살펴볼까요?

늘봄어린이집은 재원 영아의 부모님과 함께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모든 부모님과 공유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질을 함께 관리하고,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단원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님 2명과 보육전문가 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두 번째 날, 어린이날 파티 & 포토존 & 페이스페인팅

재미있게 즐기는 것도 좋지만 어린이날이 어떤 날인지 알아야겠죠? 두 번째 날에는 어린이날 100주년의 의미를 배우고, 파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즐거워 보이죠?

세 번째 날, 어린이날 에어바운스

우리 친구들이 사랑하는 에어바운스! 자유롭게 통통 튀는 신체활동을 경험하며 스트레스 해소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건강·안전·급식·위생관리 4개 영역 15개 지표에 대한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보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주북구다함께돌봄센터 양산사랑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양산 사랑으로 돌봄센터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양산사랑으로 돌봄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즐거운 배움터! 부모에게는 안심되는 자람터! 동네에게는 행복을 나누는 나눔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초등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즐겁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광주북구다함께돌봄센터(양산 사랑으로)의 지역사회와 연계한 프로그램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한다.



전통놀이다문화연구소 ‘다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에게 잊혀져 가는 우리나라 전래놀이를 소개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통놀이 다문화연구소 ‘다늬’와 연계하여 매주 재미있고 유익한 전래놀이 활동 시간을 가고 있다. 친구들과 팀을 이루어 하는 전래놀이를 통해 존중, 배려, 책임감, 공동체 의식 등을 배우고, 규칙 있는 게임을 통해 역할이행, 양보, 공정 등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다.



광주 ‘생명의 숲’

또한, 광주 ‘생명의 숲’ 선생님들과 함께 인근 어린이 공원에서 도시공원이용 프로그램인 숲방울 넣기 게임과 소나무 잎 씨름놀이, 삼투압작용을 이용한 아이비 심기 등을 통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과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생활 속에서 작은 실천 다짐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온유향공방

마지막으로 온유향공방과 연계하여 라탄바구니를 만들어 부모님께 선물하였다.

라탄은 등나무를 일컫는 말로 줄기가 길고 질겨서 주로 공예용 재료로 많이 사용되며 접착제 같은 재료를 사용하지 않고 오직 물과 라탄으로만 만들 수 있어 친환경적이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처럼 양산사랑으로 돌봄센터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연계하면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즐거운 배움터! 부모에게는 안심되는 자람터! 동네에게는 행복을 나누는 나눔터로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인권문화제 오월인권길 걷기

광주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
국립 5.18 민주묘역으로

어린이·청소년·어르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각자의 의미로 다가오는 5.18이 오늘은 더 특별한 추억 조각으로 기억된 날이었다. 이것이 5.18 주먹밥 정신이요, 광주정신의 새로운 부활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오월인권길을 같이 걸었던 기억이 더불어 삶의 희망 씨앗이 되었으리라 기대해 본다.



지난 5월 21일, 문흥동 문산마을(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거점 문흥장애친화마을)에서는 광주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하여 국립5.18민주묘역을 향한 ‘오월인권길 걷기’가 진행되었다. 장애인 52명과 비장애인 70여명이 함께 대동정신으로 대표되는 오월광주정신을 돌아보며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장애친화마을의 소중함을 널리 알리는 행사로 기획되었다. 인권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소소한 이벤트를 포함하고 1회용품 프리 행사로 계획하여 행사 속에서 다양한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였다. 이동약자의 발걸음을 고려하여 코스를 구분하고 마을 소통공간인 느티나무어린이공원(당산나무)과 오월사진관에서 5개 조로 나눠 출발하였다. 1조 각화·동림·문흥 장애친화마을 활동가, 2조 문흥동 주민들, 3조 초·중학생, 4조 청각장애인, 5조 중·고등학생으로 구성된 모듬은 서로 간의 인사와 푸른 하늘, 상쾌한 공기를 맞이하며 걸음을 옮겼다.

‘시詩민民의義 솟음길’을 따라 걸으며 솟아오른 맘을 식혀 마음을 여유를 가질 즈음 준비된 이벤트가 시작되었다.

- 메타세콰이어숲에 마련된 ‘마을오월사진관’에서 단체 및 가족사진 촬영
- ‘심어지정자’에 마련된 5.18 최초희생자인 청각장애인 ‘고 김경철 나눔터’에서 수어배우기 및 청각장애인의 오해와 진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간식(오이)나눔 이벤트
- 장등동 터널에서 인권놀이터를 구성하여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부르며 5.18관련 퀴즈
- 용호마을에서는 삼색 주먹밥(흰색은 5.18정신, 노란색은 세월호, 분홍색은 성평등을 상징) 세 덩이를 뽕튀기 접시에 올려 쓰레기 프리를 경험



- 무더위에 힘들고 지칠 즈음 주룡마을 앞에서 얼음과자로 더위를 식혔다. 이런 소소한 이벤트를 거처며 시민의 인권을 돌아볼 수 있었고 다양한 협력기관을 통해 대동정신이 가까이 있음을 경험 하며 모든 참여자는 국립5.18민주묘지 민주문의 앞에서 다시 만났다.

헌화와 참배, 그리고 고 김경철님의 묘역을 찾아 살아생전 활동 이야기를 전 광주광역시농아인협회장 강복원님께서 설명하였는데, 고 김경철님의 배우자께서 행사에 동참하여 더욱 큰 의미가 되었다. 모든 참여자가 역사의 문에 모여 소감을 나누는 그곳에서도 5.18을 수어로 이야기하고 통역하면서 모두가 함께 소통하는 의미있고, 뜻 깊은 행사가 되었다.

마을활동으로 주민들과 많은 추억을 나눈 하루였다. 어린이·청소년·어르신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각자의 의미로 다가오는 5.18이 오늘은 더 특별한 추억 조각으로 기억된 날이었다. 이것이 5.18 주먹밥 정신이요, 광주정신의 새로운 부활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다. 마을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 오월인권길을 같이 걸었던 기억이 더불어 삶의 희망 씨앗이 되었으리라 기대해 본다.

- 광주장애인종합복지관 마을활동가 윤호석, 이경희 -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고, 20일부터 한 주는 '장애주간'이며, 4월 한 달은 '장애인의 달'이다. 세계 장애인의 날은 12월 3일이지만 우리나라 장애인의 날은 4월 20일이다. 겨우내 얼어붙은 땅을 뚫고 새싹이 자라듯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에 고난을 이겨내고 힘차게 새 출발을 하자는 의미라고 한다.

광주광역시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72년부터 민간단체에서 개최해 오던 '재활의 날'을 이어받아 1981년 UN의 '세계장애인의 해' 선포에 맞춰 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지정해 매년 기념하고 있다.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

제42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는 장애인의 날 전후로 1주일을 장애주간으로 정하고,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였다. 장애주간에는 이용 장애인과 종사자가 함께 장애인의 다양한 권리를 담은 피켓을 들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는 임미숙 시설장의 기념사와 떡 케이크로 42번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을 모두 함께 기념하였으며, 에폴드 뮤직 이현경 대표의 플룻연주를 감상해보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4월 21일에는 서울우리아이치과 조원빈 원장이 작년에 이어 후원금을 전달하고 캠페인에 함께 참여하였으며, 4월 22일은 전주한옥마을로 야외학습을 떠나 오랜만에 작업장을 벗어나 동료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며 뜻깊은 하루를 보냈다.

모든 행사와 프로그램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되었으나 하루속히 코로나 종식

으로 마스크를 벗고 마음껏 이야기하고 음식도 나눌 수 있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 본다.



2022년 제42회 장애인의 날 슬로건은 '장애의 편견을 넘어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하여'이다. 장애가 편견과 차별로 인식되지 않고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가자는 뜻을 담고 있다.

장애인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불편한 점은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과

인식이라고 한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보는 사회적 인식과 편견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 많이 줄어든 것과는 하나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불편한 시각과 오해가 많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사회인식의 개선과 함께 장애는 단지 사람이 가진 수많은 특성중의 한가지라는 인식변화를 위해 여러 방면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여러분은 6월을 떠올렸을 때, 어떤 날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현충일과 6.25전쟁일 등이 있는 6월은 ‘호국보훈의 달’로 숭고한 희생을 기리고, 나라 사랑을 실천하는 달입니다. 이러한 공휴일, 기념일 외에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만들어진 기념일이 있다는 사실, 다들 알고 계셨나요? 지난 6월 15일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었습니다.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도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학대 없는 안전한 광주를 위해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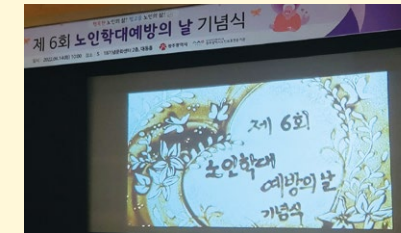
광주노인보호전문기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식 개최



※ **노인학대 예방의 날** :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과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6월 15일로 지정(2016년) (노인복지법 제6조 제4항)

※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학대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6월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World Elder Abuse Awareness Day)’로 정함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광주광역시와 함께 지난 6월 14일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기념행사는 이달주 복지건강국장, 조호권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 신동이 대한노인회 동구지회장, 노인 인권 증진 유공자,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공연과 노인 인식개선 그림 공모전 시상, 유공자 표창,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현황 보고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유공자 표창에는 노인인권 증진에 기여한 시민과 공무원 등 7명이 시장상을 수상하였고,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기념하여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이 개최한 노인인식개선 그림공모전에서 입상한 총 9명의 어린이가 상을 수상하였다.

이달주 복지건강국장은 기념식에서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계기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확산되고, 더 나아가 노인학대가 근절되기를 바란다”라며 “어르신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인학대 없는 안전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원하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번 현황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광역시의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472건으로 2020년 (457건) 대비 3.28% 증가하였다. 이 가운데 학대 사례로 판정된 건수는 총 219건으로 2020년 (263건)보다는 16.7%가 감소한 상황이다.

광주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 피해 노인에게는 상담서비스, 복지서비스,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보호서비스, 정보제공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인인권교육과 노인학대 예방교육도 연 200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와 함께, 6월 7일부터 17일까지 시청 1층 시민 숲에서 노인인식개선을 위한 사진과 그림 등을 선보이는 ‘노인인식개선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광주시 내 아동시설 어린이들이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주제로 한 작품들을 전시하였다.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시작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노숙의 만성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거리노숙시민의 탈 노숙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업

지난 3월, 우리 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이 주관한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다.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노숙의 만성화 해소를 위한 일자리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으로 거리노숙시민의 탈 노숙과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진행되며, 지역의 노숙시민 등에게 공공·민간 분야 일자리 지원을 비롯 ▲심리치유 ▲취업프로그램 ▲주거지원 ▲주민등록복원 ▲취업연계

등을 지원한다.

현재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은 서울, 수원, 대전, 대구, 부산의 노숙인 시설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 광주가 신규로 포함되었다.

참여대상으로는 지역의 노숙시민 뿐만 아니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까지 선정하고 있다. 광주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는 해당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노숙시민의 도전과 변화, 그리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시작이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노숙시민의 자립을 위해 노력 할 것이다.



“노숙인들의 다시서기를 언제나 응원합니다.”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지역의 노숙인 등에게 일자리 지원, 심리·교육훈련, 복지·의료·주거 프로그램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사업을 안내합니다.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내용

목적	거리노숙인 탈노숙 및 사회복귀 지원		
목표	일자리 지원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	맞춤형 사후관리
주요 사업 내용	· 사회적 경제 연계 일자리 · 비영리기관 연계 일자리 · 사회공헌 일자리 · 맞춤형 일자리 제공 · 취업연계 제공	· 심리,교육훈련 프로그램 · 복지,의료,주거 프로그램 · 통합 사례관리 제공 · 신용회복 지원 · 단계적 일상 적응 훈련	· 임시주거 지원 · 민간 기업 취업 · 취업 연계 프로그램 · 수급 및 긴급생계비 지원 ·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

· 주요사업 내용

주요 프로그램	세부 내용	비고
일자리 프로그램	사회적 경제 연계 일자리 / 비영리기관 연계 일자리 사회공헌 일자리 / 노숙인 동료상담 사업 일자리	광주형 거리노숙인 자활사업개발
심리지원 프로그램	심리의미치료 프로그램 / 정신알콜상담 문화치유 프로그램 등	개인 및 집단 프로그램
교육훈련 프로그램	취업구직활동 프로그램 / 자립능력 향상 교육 집재·근로능력 향상 교육	사업 특성에 맞는 훈련프로그램
복지 서비스	주거지원 및 의료 서비스 제공 / 개인회생 및 수급·긴급생계비 지원 기타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및 기타 복지서비스	개인 맞춤형 복지서비스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선정기준 및 내용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 선정기준

광주광역시 노숙인 등 : 거리노숙인 / 쪽방, 원룸, 빌널하우스 등 비주거형태 거주자 / 노숙위기에 놓인 사람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 기초생활수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 참여 대기자
(중복수급 안됨) / 그 외 사업취지에 맞는 취약계층 등

사업제외자 : 노숙인 시설 생활자 /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거리노숙인 특화 자활사업 급여

세부사업명	구 분	산출 내역	지급기준	비고
일자리지원	인건비	월 540,440원	· 주15시간 미만 · 월60시간 미만 · 최저시급(9,160원) 적용 · 주차, 월차 미포함	
	프로그램 참여수당	일 5,400원X20일		

· 신청방법

방문 및 유선 신청

상 담

사업참여

61510 광주광역시 동구 화산로 177-1 (용산동 629-1) Tel. 062)716-7402 / 010-4677-7410 / Fax. 062)716-7409

※ 이 사업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청년에 대한 정신·신체 건강 케어를 통해 청년의 사회활동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청년 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국 시·도 단위의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을 2019년부터 운영하고, 올해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의 일환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신규 내역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청년층의 심리정서와 건강성 증진을 위한

청년사회서비스사업

통계청 「2018년 경제활동」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비경제활동 인구 중 청년층(20~29세) 비중은 37.2%로 매우 높고, 고용불안정에 따른 청년의 삶의 질은 악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청년층의 건강형태, 식생활 습관, 유병률, 정신건강 수준이 타 연령층에 비해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어 이러한 다양한 욕구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사회서비스 모델 개발이 강조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에 따라 광주광역시에서도 청년의 심리정서 및 건강성을 증진시키고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올해 4억원을 투입하여 보건복지부 사전 공모를 통해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2곳을 선정하였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총 18개의 제공기관이 등록하여 5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은 만19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신체 건강증진을 위한 운동처방 및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청년신체건강증진서비스’를 중점으로,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만19~39세 청년에게 심리·정서 문제해결 및 예방을 위한 1:1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편,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는 신규로 시행하는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의 조기 정착 및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진입 단계별·대상별 맞춤형 컨설팅 및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실무 컨설팅과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규 진입 제공기관 등록 전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사업 홍보를 위한 포스터를 제작, 97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하였고 이용자별 서비스 제공 필수서식을 마련하는 등 사업 홍보 및 서비스 품질관리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향후 청년사회서비스사업단 및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대상으로 서비스 모니터링 및 제공기관 간담회를 거쳐 사업의 효과성을 진단하고 단계적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보다 “광주 청년층의 수요와 욕구에 부합하는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 3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원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광역지원기관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올해 3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내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원 전담인력 2명을 채용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현장 종사자의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업에 앞서 지난 3월 16일부터 3월 30일까지 15일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 대상 성폭력 및 성희롱 실태조사를 위해 집중인터뷰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전체 생활지원사 853명 중 832명인 97.5%가 참여하여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설문에 참여한 832명 중 17.4%인 145명이 성희롱·성폭력 피해의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서는 서비스이용 어르신의 성인지 감수성이 낮아 자신의 언행이 성희롱,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서라는 응답이 66.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 순으로는 이용인의 반복적인 성적 농담을 받아 주는 것이 성희롱의 원인 될 수 있다는 응답이 63.7%로 나타나 이용인과 종사자 대상 예방교육의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복수응답). 최근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재단 홈페이지 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게 온라인 상담창구(비공개)를 개설하였다.

5월부터는 기관장·중간관리자, 전담사회복지사, 현장서비스 종사자인 생활지원사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향상, 젠더 폭력의 이해,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절차 등 현장 사례를 활용한 직책에 적합한 맞춤교육을 실시하며 현장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이용자와 종사자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게 사례 중심의 교육용 영상자료를 여성민우회 연극동아리 ‘시나페’와 협업으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향후에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광역지원기관 성폭력 예방대응지원팀은 노인맞춤돌봄 수행기관 종사자와 이용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돌봄 환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장·단기 업무공백 발생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지원하는 사업이다.

광주광역시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

'코로나19 위기극복 유공자 시장표창' 수상



2021년~2022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업무공백에 대한 대체인력 신청이 증가하였으며, 대체인력지원센터는 그 수요에 발맞춰 돌봄직, 조리원, 간호직 등 대체인력을 증원하고 사회복지시설에 파견하였다.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예방 및 대응 과정에 각 분야에서 헌신하신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 진작을 위해 '코로나19 위기극복 유공자 시장표창'을 추진하였으며 대체인력지원센터 소속 조리원 문예순님이 그 공을 인정받아 지난 5월 25일 광주 광역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상 하였다.

문예순님은 "대체인력지원센터 직원으로서 다양한 사회복지시설에 파견되어 업무를 진행하면서 뜻하지 않은 난관에

부딪히기도 하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내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번 수상으로 인해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함께 고생한 다른 대체인력지원센터 직원들을 대표해서 상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더 잘하라는 의미로 알고, 지금껏 잘해왔지만 앞으로 더 성실하고 행복하게 업무에 임하겠다. 대체인력지원센터 종사자분들 모두 대단하시다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대체인력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에 더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북구종합재가센터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틈새돌봄서비스로 북구 관내 돌봄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일상에서 누리시기를 희망해본다.

북구종합재가센터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돌봄사각지대에 따뜻한 돌봄! 촘촘한 돌봄! 원스톱 돌봄! 을 실천하다.

북구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은 지역의 주민들이 요양, 돌봄, 주거, 건강 등의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아 이웃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지역주민 중심의 돌봄 공동체 사업이다.



통합돌봄으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첫째 "내 가족같은 돌봄"이다. 함께 지낼 가족이 없거나 돌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가족 같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한다.

둘째 "이웃처럼 편한 병원 동행 서비스"는 퇴원 후 통원치료를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동행하는 서비스이다.

셋째 "왜적하고 안전한 주거서비스"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에서 퇴원(소)하거나 수술 후 재활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단기 케어 서비스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북구종합재가센터는 위의 통합 돌봄 서비스 중 "내 가족



같은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선정되어 2021년부터 "보건복지전달체계강화사업"의 일환으로 틈새돌봄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북구종합재가센터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틈새돌봄서비스로 북구 관내 돌봄이 필요한 복지사각지대 어르신들이 꼭 필요한 도움을 일상에서 누리시기를 희망해본다.

시설운영팀은 향후 어린이집 우수사례 기관 방문을 지속하여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중심 보육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설운영팀

답은 현장에 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팀은 늘 고민이 있다.

‘어떻게 하면 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의 종사자 처우개선과 품질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노숙인까지. 여러 소속시설 운영지원에 힘쓰는 우리 시설운영팀은 이에 대한 해답을 현장에서 찾아보기로 했다.



대전사회서비스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및 응암행복어린이집



지난 4월 24일~26일, 시설운영팀은 대전, 서울 사회서비스원과 응암행복어린이집을 찾았다. 광주 사회서비스원의 어린이집 운영 전문성 강화와 차별화된 취약보육운을 위한 우수사례 기관 방문을 위해서다.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지난해부터 남구구립늘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북구국공립 어린이집 공모에 선정되어 국공립어린이집 공공 운영에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이번 방문으로 보육전문가로 구성된 서울, 대전사회서비스원과 특수교사자격을 토대로 장애통합보육을 운영하는 응암행복어린이집의 우수사례를 생생하게 들 수 있었다. 특히 오랜 시간 시행착오와 경험을 통해 쌓아온 노하우를 들으며 차별화된 취약보육 운영 모델 개발에 더욱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시설운영팀은 향후 어린이집 우수사례 기관 방문을 지속하여 공공이 책임지는 아이중심 보육 환경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자 하니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광주사회서비스원 시설운영팀 우수사례 기관방문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



지난 5월 11일, 시설운영팀은 사회복지시설 우수사례 기관으로 광주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했다. 이랜드복지재단이 운영하는 광주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은 후원금품 관리체계, 홍보 활성화, 이용자 관리 등 우수사례를 갖춘 노인복지관이다.

영유아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영역의 소속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서구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해 다년간 고민과 노력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들의 노하우를 듣고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용자 시각에서 바라보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고민하는 서구 노인종합복지관의 모습은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 품질향상을 위한 자극제가 되기도 했다. 시설운영팀은 앞으로도 소속시설의 품질향상을 위해 다양한 우수사례 기관방문을 지속하고자 하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돌봄지원팀이
궁금하다면?
스캔해주세요!**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유튜브에서 시청가능합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원의 민간기관 지원사업 중 하나로 민간 제공기관에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까지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기술사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정태관)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사업전문성 및 만족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민간지원팀

소규모 취약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확보와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안전점검 시행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원의 민간기관 지원사업 중 하나로 민간 제공기관에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까지 확보하기 위한 사업”

지난 3월, 사회복지시설 안전지킴이단 2기 34명을 위촉하고, 3월 25일부터 4월 15일까지 4주에 걸쳐 관내 민간사회서비스 제공기관 40개소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지원했다.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사회복지서비스원의 민간기관 지원사업 중 하나로 민간 제공기관에 체계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종사자의 안전까지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기술사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정태관)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와 사업전문성 및 만족도 향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을 희망하는 113개 기관 중 시설면적, 건물연식, 이용자수 등의 기준으로 안전점검 40개소, 소독·방역지원 32개소를 선정했다.

안전점검에 참여한 기술사들은 배정된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전문성을 바탕으로 꼼꼼한 현장점검과 피드백을 제공함으로써 시설의 안전한 환경조성에 기여했으며, 안전점검 종료

후에는 각 시설에 결과보고서를 배부하여 자체점검지식과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조호권 원장은 “2021년에 이어 올해도 한국기술사회 광주지회와 함께 시설안전점검을 진행함으로써 소규모 취약시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광주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와 함께 협업의 좋은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이번 상반기 안전점검에 참여해 주신 사회복지시설과 한국기술사회 광주전남지회 소속 기술사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하였다.

한편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은 시설안전점검 외에도 위생·방역사업도 지원한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32개시설에 대해 연중 4회 지원 예정이며, 지난 5월에 1차 방역을 완료했다.

그 밖 에도 안전점검 컨설팅, 환경개선(평면도 및 대피도) 지원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의 안전 확보와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 할 것이다.



당신과 나의 즐거운 일터



학창시절,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 모여 함께하던 동아리 활동을 기억하시나요?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하는 즐거운 시간. 광주사회서비스원에도 그 특별한 시간들이 존재합니다. 나의 취미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과 회사를 함께 다니는 것. 생각만으로도 업무의 스트레스가 풀리는 기분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서비스원 직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는지 살펴볼까요?



살구세차단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살구세차단은 전문적인 세차 및 차량 관리법 등을 함께 배우면서 조직 내 긍정적 소통문화 및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업무에 지쳐있는 심신을 힐링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합니다.



고을미르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안녕하세요. 광주사회서비스원 소속 동아리 <고을미르>입니다.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소속 대체교사 4명으로 이루어진 저희 동아리는 보육 관련 서적이나 취미 도서를 읽은 후, 이야기를 나누며 보육 업무의 질을 향상시키고, 업무 스트레스를 건강하게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흥미로운 환경에서의 독서! 그리고 다양한 힐링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운 동아리 활동을 해나가겠습니다!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바람, 세월, 기분따라

광주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종사자로 모인 동아리 '바람, 세월, 기분따라'는 아이들을 사랑하는 예쁜 사람들이 모여 업무로 지쳐있는 심신을 자연과 함께 힐링하고, 서로 긍정의 힘을 나누며 재충전 하기 위한 동아리입니다. 문득 걷고 싶을 때 자연과 함께 하고 싶을 때, 누군가와 차 한잔의 여유를 누리고 싶을 때 언제든 찾아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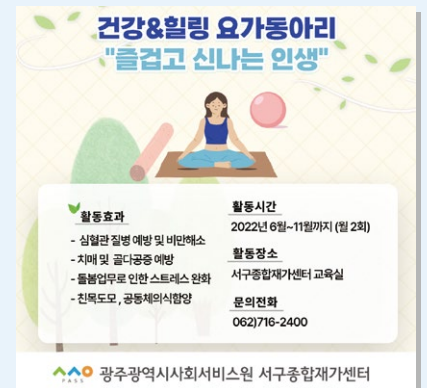


덕뿌니아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

동아리 덕뿌니아는 광주육아종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대체교사들의 모임입니다. 저희는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함께 모이기 어려운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힐링 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트레킹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어 서비스원 동아리 지원 활동에 선정되어 회원들과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작년에는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곳을 트레킹 했다면, 올해는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도 공기 맑은 산새 속을 걸으며 광주의 역사를 배우는 유적지 탐방을 하고자 합니다. 월 1회 모임으로 역사를 배우고,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얻는 행복한 동아리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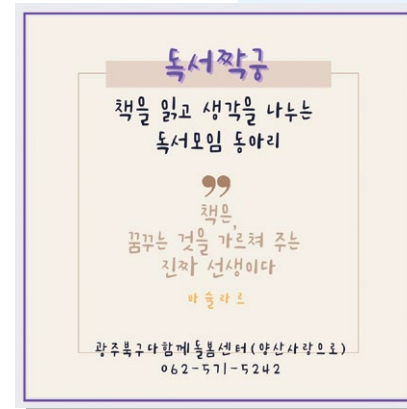
서구종합재가센터 즐겁고 신나는 인생

즐겁고 신나는 인생은 과연 어떤 삶 일까요? 나이는 누구나 피할 수 없는 숙제입니다. 돌봄 종사자들은 과연 몇대가 많을까요? 50~60대가 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 근골개 질환과 스트레스, 과다 노동으로 인한 건강이 걱정입니다. 힐링·소통·친목을 위한 요가 활동으로 종사자들의 심신단련과 자기 발전을 서구종합재가센터와 함께 합니다. 사랑합니다.



독서작공 다함께돌봄센터 양산사랑으로

독서작공은 함께 모여 책을 읽고, 자유롭게 책에 대한 자신의 감상과 의견을 나누는 동아리입니다. 한달에 한번 맛있는 차와 함께 책에 대한 각자의 해석을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책을 좋아 하시는 분, 책 읽는 습관을 가지고 싶으신 분, 독서에 관심이 많으신 분, 독서작공과 함께 좋은 책을 통한 자유로운 토론, 좋은 인연을 이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할수록 즐거운 독서! 다함께돌봄센터(양산사랑으로)와 함께 해요!



북구종합재가센터 손복, 발복, 행복을 키우는

인생이 말합니다. 피고 지는 삶이니 웃으며 살라고,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라고, 살면서 인생의 적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동아리! 에너지원, 웃음금정 마인드, 웃.찾.사. 동아리에 함께하시면 꽃길인생으로 안내될 것입니다. 손발운동, 마사지를 통한 인지능력향상, 발마사지, 춤, 밴드 스트레칭활동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북구종합재가센터와 함께해요~



VOICE OF GPASS 나만의 건강관리법

점점 더워지는 날씨, 업무에 지친 하루,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신가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고 합니다. 오늘 사회서비스원 직원들의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덥고 습한 여름을 건강하게 나기 위해 함께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돌봄지원팀 | 오윤옥 팀장

온몸으로 즐기는 ‘스피닝’으로 건강과 스트레스 관리

나만의 미니 미니한 GX룸, 그 중 최애 운동은 바로 바로 ‘스피닝’ 1987년 남아공출신 철인 3종 경기 선수인 자니 G가 고안한 운동으로 시간당 체중에 따라 800~1,000kcal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3회, 신나는 음악과 함께 하다 보면, 건강관리는 물론 스트레스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시작해 보실래요?

돌봄지원팀 | 김진태 차장

사서원의 지구지킴이가 되겠다!

지구를 지키는 사서원의 다짐에서 시작되었던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 하기가 이제는 건강관리를 위한 생활 습관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 연구결과에 따르면, 매일 적어도 80계단(4층 이상) 오르는 사람이 앉아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심혈관 질환 사망 위험이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은 바쁜 현대 사회에서, 계단 오르기와 같은 생활 속 운동으로 건강을 관리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VOICE OF GPASS / 나만의 건강관리법



돌봄지원팀 | 양예선 주임

MZ세대의 등산열풍에 동참!

최근 들어 운동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높아지며, 등산이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취미가 되었다는 여러 매체의 글들을 자주 보았습니다. 제가 MZ세대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건강관리는 조금이라도 건강할 때부터 하는 것!”이라는 말을 듣고 저도 작년부터 꾸준히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산을 올라가며 늘어나는 체력에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산은 올라갈 때도 중요하지만 내려올 때 더 중요하다는 것 다들 아시죠? 우리 모두 자연을 아끼며 우리의 건강도 점차 UP! 시켜보아요!



경영기획실 | 전해나라 주임

사서원의 수리, 달이는 바로 나!

일주일에 세 번 1,000미터 수영, 식후에 하는 산책이 제 건강관리 비법입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저는 크로스핏, 필라테스, 요가 등 다양한 운동을 해보았는데요. 운동을 하다 보니 무릎이 약해져 고민이 정말 많았습니다. 따라서 무릎에 무리가 없고,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찾다 수영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영법을 하나씩 배울 때마다 따라오는 성취감과 재미로 수영에 중독되었어요. 더운 여름, 땀으로 찻찻해질 수 없는 수영! 여러분도 함께해요~



시설운영팀 | 임경민 차장

요즘은 마라톤이 유행이지, 같이 한 바퀴 뛰실래요?

매일 3km씩 달리기 후 동네 한 바퀴를 걸습니다. 달리는 심폐기능과 근육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해소와 우울증 완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처음 시작하는 분께는 걷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걷기는 진입장벽이 제일 낮은 운동이기 때문에 언제든 시작하기 편하고 목표 달성도 쉽습니다. 걷는 것의 또 하나의 장점은 걸으면서 생각 정리를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기가 참 어려운데 걷다보면 어느새 내가 하고 있는 고민을 생각하며 스스로 답을 찾는 과정이 되더라고요.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면, 시간을 내어 걷고 뛰며 자신에게 건강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VOICE OF GPASS / 나만의 건강관리 법



경영기획실 | 김소명 대리

나는야, 사서원의 영양제 전문가!

건강관리는 젊을 때 챙겨야한다죠? 장기화된 코로나19로 실외활동의 제약이 생기다보니 전체적인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늘어나는 기분입니다. 따라서 체력 보충을 위해 종합비타민부터 루테인, 마그네슘 등 기본적인 건강기능식품을 챙겨먹으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영양제는 유튜브 “약들약” 약사님의 추천을 통해 제 몸에 맞게 구입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도 부지런히 건강관리를 해봅니다.~



경영기획실 | 박민규 대리

나는야 운동매니아, 다 잘 할수 있지!

평소에 건강관리를 위해 웨이트, 등산, 달리기, 복싱, 줄넘기, 수영을 취미 생활로 가져보았습니다. 이 중에 제가 가장 선호하는걸 뽑자면 수영을 추천 드리고 싶습니다. 수영은 들숨과 날숨을 반복적으로 하는 유산소 운동으로 심장과 폐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며 몸의 균형을 잡아주어 밸런스 및 척추가 정돈이 되는 느낌이 들고, 자세가 좋아지며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키도 커지는 운동입니다. 일부 연구결과에 따르면 수영을 하는 사람과 안하는 사람의 수명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인간에게 매우 유익한 운동이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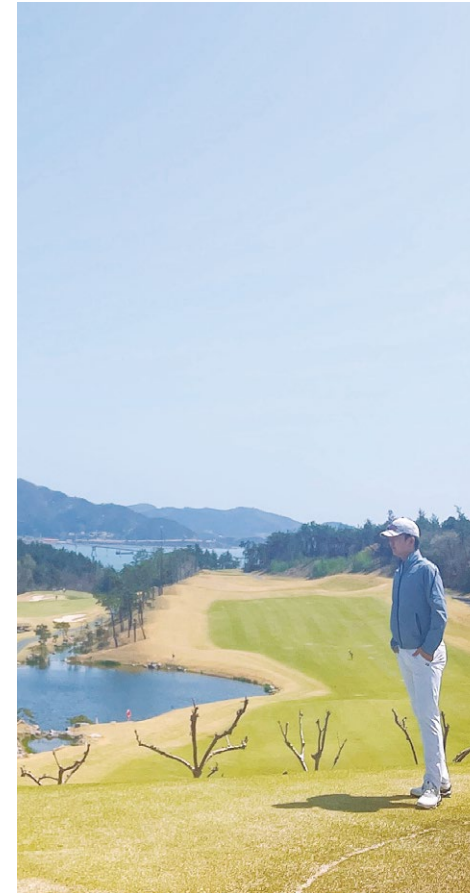


경영기획실 | 강민호 주임

나는야 라이더, 달리는게 좋아

저는 취미 및 건강관리 차원에서 남편과 같이 자전거를 타고 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방법 중에서 당연히 건강한 먹거리를 섭취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그보다도 부지런히 움직이고 운동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이면 영산강 자전거 길을 따라 30~40km 정도 자전거를 탑니다. 요즘같이 좋은 날씨에 좋은 풍경,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은 주말을 즐겁게 만듭니다. 섬진강 풍경이 4대강 중에 으뜸이라고 하는데 다음번에는 섬진강의 멋진 풍경을 즐겨보고 싶습니다.

VOICE OF GPASS / 나만의 건강관리 법



경영기획실 | 유찬주 주임

주말을 기다리는 조금 특별한 이유, 들어보실래요?

저는 2주에 한 번 주말이 오면 필드에 갑니다. ‘오늘은 좋은 스코어를 쳐야지’ 하는 기대와 다짐을 안고 갑니다. 필드에 가기 전 준비하는 시간이 더 즐겁습니다. 골프채·골프화·장갑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아이스박스에 시원한 맥주.. 필드에 도착해 푸른 잔디가 가득한 필드를 보며 눈을 정화합니다. 라운딩에 앞서 스트레칭과 연습 스윙을 하고, 어디로 보낼 지 나만의 코스공략을 생각한 후 티샷을 날립니다. 집중력과 창의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good shot! 소리와 함께 티샷을 마치고 동반자들과 안부를 묻습니다. 내리쬐는 햇빛을 즐기며 1홀, 2홀, 3홀...18홀 4시간 동안 치고, 걷고를 반복합니다. 흐르는 땀에 빼앗긴 수분을 보충하기 위해 아이스박스에 있는 맥주 캔을 따고 맥주를 마십니다. 시원한 목 넘김에 탄성을 지르며, 동반자의 멋진 샷에 또 한 번 탄성을 지릅니다. 18홀의 모든 게임이 종료 된 후 이제 19홀을 치러 가야합니다. 19홀이란 라운딩 이후 식사를 뜻 하고, 여기까지 오면 하루의 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멋진 자연 풍경·좋은 사람·즐거움이 넘치는 골프의 매력을 함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지원팀 | 성푸름 주임

CROSS FIT 해본사람 손? 함께 해봐요.

저는 건강관리 차원에서 지난주부터 남편을 따라 크로스핏을 시작하였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과 비례로 늘어나는 몸무게를 이제는 조금씩 줄여서 더욱 건강한 신혼생활을 보내기 위해 도전하였습니다. 크로스 트레이닝(cross training)+피트니스(fitness)의 합성어로 단시간에 고강도 운동을 통해 열량을 소비하는 운동입니다. 그룹으로 진행되는 시스템 덕분에 서로 응원해주고 기록을 체크하며 짧아지는 시간에 성취감 또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2번 밖에 경험하지 못했지만, 함께 땀 흘리며 유대감을 쌓을 수 있는 운동으로 친구, 연인, 부부에게 강력 추천하는 운동입니다.

Interview

“광주 시민을 행복으로 이끄는 가이드

“광주 시민 욕구에 기반한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 및
품질관리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광주사회서비스원에 2021년부터 새롭게 합류한 광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소개한다. 지역주민 욕구를 기반
으로 한 제공기관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는 광주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을 만나보자.



안녕하세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광주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은 사회서비스 이용권법 제31조에 따라 광주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기획 및 발굴, 지역 사회서비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전문체계를 구축 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서비스 품질관리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담당하는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이기 때문에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광주시만의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제공기관 종사자들이 직접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고민하고 의논하는 실무협의체 운영, 광주시의 사회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하는 사회서비스 라운드테이블 등 다른 지역 과는 차별화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에는 제공기관 품질평가를 담당하는 중앙사회서비스원과 협력하여 서비스 품질교육을 실시하고, 외부 전문가와 함께 컨설팅을 추진함 으로서 제공기관의 서비스 품질관리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현재 여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텐데 가장 힘든 부분은 무엇인가요?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은 사회서비스 등록제(12. 8월) 이후부터 라고 생각합니다. 사회 서비스 등록제는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품질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을 육성하고자 도입되었지만 등록제 도입취지와는 달리 낮은 진입장벽으로 인해 영리기관이 증가하고 기관 간 품질경쟁이 아닌 이용자 모집경쟁이 과열되면서 품질관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지원단에서는 공공성 강화 측면에서 회계 투명성 제고 및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회계프로그램을 제작 및 배포 하였고, 제공기관의 품질향상 유도를 위해 복지부 품질 평가





교육 및 컨설팅, 품질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을 진행하며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언제 인가요?

이용자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한 고민, 즉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제공인력의 경우, 대부분 계약직 또는 시간제 종사자, 프리랜서(강사)를 활용하는 기관이 많다 보니 이직률이 높고 고용의 불안정으로 인해 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민에서 시작하게 된 것이 제공인력에 대한 고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해 관계자(공무원, 제공기관)와 공청회를 통해 제공인력 관련 광주 운영기준을 마련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제공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고용안정화 도모에 이바지한게 가장 큰 보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22년에 새롭게 시작 또는 진행되고 있는 특별한 사업이 있나요?

사회인구구조 변화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연계사업으로 2021년에 신규사업을 개발하고 올해 인큐베이팅으로 추진하는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만65세 이상 노인(기준중위소득 160% 이하)을 대상으로 이용자의 영양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반찬 지원 및 영양관리지원서비스와 정리수납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건강한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 사업의 진행 절차를 간략하게 소개해주세요.

신규사업 「돌봄 취약계층 맞춤형 케어 서비스」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잇는 광주형 사회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고자 2021년 7월 사회서비스 정책포럼을 거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기관 자문, 사업발굴을 위한 유관 기관 간담회, 통합돌봄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하였으며 10월, 광주광역시 심의위원회를 통해 기준정보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올해는 신규사업 시장 안정화 및 사업 내실화를 위해 [1단계] 제공기관 공모 및 선정 → [2단계] 제공기관 O.T 및 교육 → [3단계] 사업운영 모니터링 및 평가회의 → [4단계] 서비스 재구조화 순으로 인큐베이팅을 추진하며, 사업운영 전반 성과 및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여 향후 구개발 또는 시개발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으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남은 2022년의 각오와 힘찬 포부를 한 분씩 이야기 해주세요.

김경혜 단장

광주 일자리는 지역사회서비스로부터! 광주시민이 체감하는 수요자 중심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보편적 서비스의 예방적 측면이 강한 국가주도형 서비스로서 이용자는 인적 자원을 축적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들은 고용확충에 기여하는 광주지투성장에 지원단은 현재도, 미래도 GO! GO! GO!

김조호 과장

지원단에 처음 입사 후 세 번째로 맞이하는 곳이 광주사회서비스원입니다. 운영 법인이 바뀔 때 마다 힘들고 어려운 점은 있었지만 어려웠던 시간을 뒤로 하다보니 사회서비스원에 온지도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에 등지를 튼 만큼 객이 아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근무하려고 합니다. 어떤 하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봉희 대리

살구네 집으로 이사 후 새롭게 적응한지도 벌써 1년이 훌쩍 넘었습니다..(저희 딸이 엄마는 살구네 집에서 일한대요~ㅋ) 새로운 가족을 만나 여전히 설레이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무의 담당자로, 한 팀의 일원으로 늘 생각하는 다짐은 “그 안에서 어울리며 내 역할에 맞게 일하자”입니다. 어떤 날은 최선을 다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속세에 지쳐 느슨해진 저를 마주할 때가 많지만 돌아보면 한 걸음 더 성장해있기를 기대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구네 집에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겠습니다.^^

박근원 대리

기존 직장에서는 4~5년 정도 근무하다가 새로운 직장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으로 옮겨오면서 설레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 보는 직원들과 어울리고 새로운 업무

시스템에 적응하기까지 좌충우돌했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처음부터 함께해왔던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에 누가되지 않도록 주어진 업무를 땀(?)내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직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지현 주임

팀의 막내로써 올해 지원단에 입사하여 가장 정신없는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서툴고 부족하지만 단장님 이하 팀원 분들의 세심한 배려와 도움, 격려를 바탕으로 업무를 차근차근 잘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회서비스의 영역은 다양하고 폭넓은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에 대해 더 알아가며 사회서비스 관련 전문적 지식을 넓혀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도전과 열정적인 자세로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의 발전에 발맞춰가겠습니다.

지원단 화이팅! 광주사회서비스원 화이팅!!!



사회서비스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는 꼭 필요하지만 민간기업들이 저(低)수익성 때문에 참여하지 않는 복지서비스를 뜻한다.

나에게 힘이 되는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가 국민의 일상 속으로 찾아갑니다!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정책
뉴스

나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
편리하게 확인한다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안내드립니다.

**출산·육아, 일자리, 건강, 노후
등 상황별 정보 한 권에 모두
담아**

보건복지부는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는 복지
서비스를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2022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 책자를 개정 발간했습니다.

이 책(총 415쪽)에는 국민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복지서비스 내용을 담고 있고, 생애주기별, 대상 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하여 복지서비스를 쉽게 찾아보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안내 책자는 약 450여 종류의 전 부처 복지사업을 기준으로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사업과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새롭게 추가된 신규 주요사업

- ① 출산가정의 경제적 및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한 첫 만남 이용권(국민행복카드)
- ② 영아수당
- ③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전문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용권)
- ④ 1인 가구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지원을 위한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사업

기존 사업에서 변경된 사업기준&내용

- 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 ② 근로장려금 소득 상한금액 인상
- ③ 긴급복지 지원제도 재산 기준 상향
- ④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의 부양의무자 기준 차별적 요소 개정
- ⑤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기간 연장

올해도 정부공식 온라인 소통 경로인 ‘광화문 1번가’*를 통해 국민, 현장공무원, 사회복지사 등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22.2, 총 545명 참여)를 실시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책자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만족 이상 65.9%)하고 있으며, 추가가 필요한 사업 분야로 1인 가구 지원사업(48.74%),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사업(27.95%) 등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올해 안내 책자에는 ‘기타 위기별·

상황별 지원’ 분야를 개편하여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1인 가구 지원사업’ 관련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더 많은 국민이 보다 쉽게 사회보장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지역자활센터, 고용센터,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전국 8,000여 개 기관에 책자를 배포(약 17만 부)하여 누구나 활용할 수 있게 할 예정입니다.

특히 휴대하기 편한 「주요 사업 50 소책자」 및 「노령층·청년층 소책자」, 「전자책(e-book)」과 「QR코드(시각장애 인용 음성지원 포함*)」 등 다양한 형태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 보조공학기를 이용 시각장애인에게 읽어주는 전자책 형태의 자료 (텍스트데이지) 지원 예정

보건복지부(<http://www.mohw.go.kr>), 사회보장위원회(<http://www.ssc.go.kr>), 복지로(<http://www.bokjiro.go.kr>), 사회보장정보원(<http://www.ssis.or.kr>) 등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을 수 있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 정보를 스스로 제작할 수 있도록 원문 제공은 물론 저작권도 개방합니다.



“앞으로도 국민이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더욱 쉽게 이용하고,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 책자를 매년 발간할 계획입니다.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방식을 활용하여 지속 안내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꿈은 같다!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총장 / 사)한국청소년보호재단 이사장
국방부 군검찰수사심의위원 / 서울구치소교정협의회회장

변 상 해



Q. 안녕하세요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사)한국청소년보호재단 이사장, 국방부 군검찰수사심의위원, 서울구치소교정협의회회장을 맡고 있는 변상해입니다.

학교에서는 상담학 석사와 박사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사회에서는 청소년보호재단을 통해 충주청소년수련원운영과 청소년 희망꾼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교도소에서 사형수, 무기수, 재소자 인성교육과 상담을 통한 교화활동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Q. 사회서비스원에 대해 알고 계시는지?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 영역의 발전을 위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지?

노인 돌봄 서비스, 영유아 보육지원 등 아이부터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 전 분야의 공공성, 전문성, 투명성 향상으로 서비스 질을 개선하고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돌봄 최전선에서 고군분투하는 공공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발전방향은 민간 서비스 기관과 협력하여 전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돌봄 서비스 종사자 교육을 일원화로 질적 수준을 높여 이용자들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기를 바랍니다.

Q. 교육 현장에서 사회복지분야 인재를 길러 내시고 계시는데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실천 가치 등이 있으신가요?

돌봄은 인간에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도와주는 서비스입니다. 사회복지사는 실천하는 학문으로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삶으로 살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사회와 공존하며 차별 없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문제로 인간의 사회관계를 제한받거나 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면 선진국가라 할 수 없습니다. 함께 더불어 어깨를 나란히 살아가는 사회가 가장 행복한 인간 평등 선진 사회복지국가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Q. 교육현장 외에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가요?

저는 중증 장애인 생활시설인 둥근 세상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행복한 동행에 대해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서로 다른 것이 틀린 것이 아니라 창의적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지개 색깔처럼 다름이 모여 아름다운 빛을 표현하듯 우리 사회도 장애와 비장애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행복한 사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두 팔을 크게 벌렸을 때 “한아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한아름 팔을 벌려 서로 연결하면 큰 돌레를 완성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아름씩 팔을 벌려 주변 사람들을 안아주고 연결하고 축복한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지난 17년 동안 교도소에서 사형수와 무기수 재소자를 상담하고 인성교육을 담당하며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조금만 더 포용적인 마음으로 다름을 인정한다면 행복한 사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진정한 나눔은 경제적 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시간, 생각, 지식, 삶과 재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작은 것이라도 이웃을 위해 재능을 기부하고 사회를 응원합니다.

Q. 최근에 가장 보람을 느꼈던 적이 있으신가요?

교도소 상담과 교육을 진행하면서 수용자들에게 꿈이 생기고, 삶의 설계도를 새롭게 그리는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낍니다.

국민을 경악케 했던 사형수들이 상담을 통해 변화되어 신앙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공부 하여 신학대학원을 다녀 목사시험에 합격한 일.

청소년 시절 또래 여학생을 살해하여 무기징역을 선고 받고 복역하다 상담과 교화 과정을 통해 변화하고, 고등학교 검정고시를 합격하여 합격 원본을 저에게 보낸 일 등 수용자와

사형수들의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며, 그러한 일에 기여를 한 저에 대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Q. 마지막으로 전국 사회서비스원과 광주사회서비스원에 바라는 점이 있으신가요?

사회서비스원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함께 더불어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새 출발하는 기관인 만큼 어려움과 고민도 많을 것이라 생각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막중한 일을 한다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돌봄이 필요한 이들과 동행하는 기관, 서비스 종사자 품질 관리 체계 표준화와 표준운영모델을 통한 지역 간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노무

사회복지분야의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한 쟁점

조 선 익 노무사(선경공인노무사사무소)



▶ 들어가며

사회복지분야의 특성에 따라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 시간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운 업무환경에서 이용인, 종사자, 회사가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각각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적법한 운영경험이 없어 자주 갈등을 만들어 내는 부분이다. 이하에서는 사회복지 영역의 특성에 따른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대해서 노사간에 이해를 돕는 내용을 전달하고자 한다.

▶ 근로일과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서에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종사원이 기간제근로자 이거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 제17조에서 근로시간,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근로자에 한함)을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하는 경우 기간제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사회복지분야의 업무특성으로 인하여 실무적으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을 특정하여 기재하기 힘든 환경에서 실제기준이 되지 못하는 근로일, 근로시간을 기재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문제,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소정근로시간, 휴게

시간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문제, 실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것에 대한 위반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기간제법 제17조에서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고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기한 합의에 따라 정해지도록 함으로써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한편, 향후 분쟁 발생 시 신속·명확한 해결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 취지이다.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업무나 사업 특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어 근로계약서에 특정기재하지 못하는 경우 편의상 근무계획표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운영과정에서 근무계획표가 확정되기 이전에 종사자가 이를 확인하고 서명(동의)하는 절차를 거쳤다면 근로계약서에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명시한 것에 준하여 종사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기간제법 제17조를 위반했다고 보기 힘들다. (고용차별개선과-2744, 회시일자 : 2016-12-16)

▶ 휴게시간

휴게시간은 종사원이 작업시간 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는 대기기간¹⁾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나 명령으로부터 이탈되는 시간이므로, 작업상의 사정으로 대기하는 대기시간과는 다르다. 사용자의 지휘, 감독아래 있는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 제3항 참조).

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없이 종사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한다. (대법 2006.11.23., 2006다41990 판결 참조)

(근로계약서의 휴게시간 기재) 휴게시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할 의무가 없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참조).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7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휴게시간을 실제 부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

기간제근로자 이거나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휴게에 관련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을 근로계약서에 특정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휴게시간은 취업규칙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93조)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를 휴게시간의 지정까지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휴게시간의 목적이 종사원의 피로 회복을 통한 노동력재생산에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기재하기 불가능 하여 대략적인 개념만 기재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휴게시간을 적법하게 부여하였다면 위반으로 보기 힘들 것이다.

(휴게시간의 변경 가능여부) 종사원의 업무의 특성상 휴게시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기 어렵고 특정을 하더라도 근무일이나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의 시기와 종기가 변경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기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면서도 사용자가 직무의 특성이나 민원업무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휴게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취업규칙에 의거, 각 사업장 별로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교대로 당초의 휴게시간을 변경하여 근무토록 하더라도 이를 위법이라고 보기 어렵다(근로기준과-2328, 2004.5.12.)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업무의 특성으로 인하여 휴게시간이 보장된다면 어느 정도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휴게시간 장소제한 가능여부) 노사간에 휴게시간 도중에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휴게시간은 작업의 시작으로부터 종료 시까지로 제한된 시간 중의 일부이므로, 휴게시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다음 작업의 계속을 위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등 일정 수준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다.

즉, 종사자에게 그 종사하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부여하면서도 업무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업무와 관련한 긴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휴게시간의 이용에 관한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경우 종사자로 하여금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장소를 사업장 안으로 제한하거나 휴게시간에 사업장 밖에 나갈 수 있도록 하되 이를 사전에 마련된 객관적 기준에 합치되는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의 제한은 휴게시간의 이용 장소와 방법에 관한 합리적인 제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제처 16-0239, 회시일자 : 2016-08-19).

(휴게시간의 사용시점) 간혹 휴게시간을 퇴근시간에 이전에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휴게시간을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3.19.).

▶ 결어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상 근로계약서에 근로일, 근로시간,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하고 이를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환경에서도 종사자의 근로조건의 보호를 외면할 수도 없기 때문에 노사가 협의하여 근무표를 확정하고 사전에 종사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휴게시간 확보문제도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객에게 휴게시간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종사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긴머리보다 반듯이 자른 단발이 좋아, 오 왜그럴까 조금 촌스러울걸 좋아해’ 아이유의 노래 팔레트의 가사 일부입니다. 노래 가사처럼 요즘 MZ세대 사이에서는 ‘촌스러움’이 유행입니다. 빌딩으로 가득 찬 콘크리트 정글을 벗어나 날 것의 자연이 가득한 시골생활을 즐기는 ‘러스틱 라이프’, 유행은 돌고 돈다는 말이 무색하지 않게 하는 ‘포토부스’와 ‘블로그’의 유행.

요즘 가장 힙한 문화를 함께 알아볼까요?

러스틱 라이프(Rustic life)

매년 트렌드를 분석하고 새로운 트렌드 키워드를 발표하는 김난도 교수의 도서 「트렌드 코리아 2022」에 등장한 키워드입니다. ‘러스틱 라이프’는 시골의, 촌스러움을 뜻하는 rustic(러스틱)에 life(라이프)를 합친 합성어죠.

날 것의 자연과 시골 고유의 매력을 즐기면서도 도시 생활의 편안함을 모두 누리는 시골향 라이프 스타일을 말합니다.

러스틱 라이프를 시도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고 다양합니다. 현대적인 건물들 사이에 초록빛의 식물들이 가득한 시골스러운 카페에 방문하는 것, 한옥의 외형을 가졌지만

현대적인 내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곳에 머물며 몸과 마음을 충전하는 여행.

부족함이 없는 삶을 넘어 모든 것이 넘쳐 흐르는 생활을 하는 현대인들은 이에 쉽게 싫증을 내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죠. 사람에 치이고, 일에 치이는 도시인들은 느긋하고 조용한 시골에서 ‘덜어내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불멍(불보며 멍때리기), 물멍(물보며 멍때리기) 등의 유행은 **정신없이 살아가는 도시인들의 피곤한 삶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시대상을 반영한 트렌드**라고 할 수 있죠.



포토 부스(Photo Booth)

「사서로운」 4호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 도서관을 소개하며 MZ세대들은 소유의 개념보다 대여의 개념이 익숙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소유’하고 싶어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한 때 유행했던 ‘스티커 사진’을 기억하시나요? 2000년대를 휩쓸었던 스티커 사진은 옹기종기 부스에 들어가 사진을 찍고, 글씨를 쓰고, 그림도 그려 나누어 가지던 추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찾아보기 어려운 스티커 사진은 ‘포토부스’의 형태로 우리에게 다시 다가왔습니다.

몇 년전부터 변화가 길거리에 하나씩 있던 포토부스는 이제는 매장이 생기고, 사람마다 선호하는 업장이 생겨 줄서서 대기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매장에 비치된 선글라스와 모자 같은 다양한 소품들로 개성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성능이 훌륭한 스마트폰 카메라를 하나씩 들고다니면서 돈을 지불해가며 **아날로그 형태의 사진을 간직하고 싶어하는 문화**, 이들에겐 디지털 형태로 사진을 남기는 것이 오히려 과거의 일이 될까요?



블로그(Blog)

‘나’의 일상을 공개하고, ‘나’의 생각을 보여주는 SNS 플랫폼은 더욱 다양해지고 있으며, 각기 뚜렷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의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는 단연 ‘인스타그램’입니다.

그러나 사진으로 대표되는 보여주기식 소셜미디어에 지치고, 늘어나는 광고와 쇼핑 탭의 활성화로 상업성이 짙어진 인스타그램을 떠나고 싶어하는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새로운 정착지로 찾는 곳은 과거 파워블로거들의 광고성 콘텐츠와 알맹이 없는 글 때문에 많은 사용자가 떠난 **‘블로그’**입니다.

동영상 플랫폼의 성장으로 Z세대들은 읽는 것보다 보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읽고, 쓰는 블로그가 다시 주목받을 수 없다는 의견이 대다수였는데요.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히 풀어낼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라는 이유로 MZ세대들이 돌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유행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내’가 하고 싶어하는 SNS를 선택하는 것이 요즘 트렌드가 아닐까요?





기적 mirac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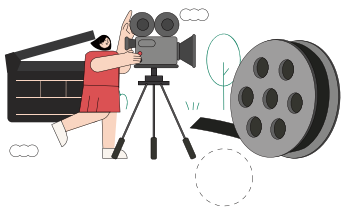
기적 miracle 2020
감독 이장훈

약 2년 1개월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영화관에서 다시 팝콘을 먹을 수 있는 날이 돌아왔다. 영화관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고 있지만, 집에 누워서 여유롭게 즐기는 시간을 포기할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이 글을 읽는 분들의 취향을 저격하길 바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소개한다.

『기적을 바라는 우리에게』

기차길은 있는데, 기차역은 없다.

작은 기차역을 만들고 싶은 소년, 꿈을 꾸다.



영화는 마을에 기차역을 만들어달라는 54번째 편지를 청와대에 보내는 준경의 이야기로 시작한다. 준경은 일반적인 포장도로도 없는 마을에 살고 있어, 매일 기차가 지나다니는 기차길을 따라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왕복 5시간의 등하굣길에 오른다. 승객들을 태우는 기차는 정해진 시간이 있지만 화물을 싣고 다니는 기차는 시간표도 없어, 자칫 위험천만한 순간을 맞닥뜨릴 수도 있다. 그래서 준경의 꿈이자 목표는 마을 사람들이 안전하게 오갈 수 있는 기차역을 만드는 것이다.

하지만 건물만 짓는다고 전부가 아니다. 기차가 지나가는 공식적인 역이 되려면 국가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통령을 꼭 만나야 하는 준경은 수학과 물리에 타고난 재능을 가지고 온갖 경시대회 상을 휩쓸었다. 마침내 대통령배 경시대회에서 상을 수상한 그날, 트로피를 들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생긴다. 힘든 시간을 보낸 준경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된다. 준경은 고등학교에서도 어김없이 뛰어난 수학 실력을 발휘하고, 이 모습을 본 라희는 첫눈에 반해버리고 만다. 준경이 매일같이 쓰는 편지를 궁금해 하던 라희는 준경의 가방을 뒤지다 들키게 되고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인 그들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수학과 물리에는 거침이 없으나 제대로 된 맞춤법도 지키지 못하며 편지를 쓰는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라희, 둘은 금세 가까워진다.

친누나인 보경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된 라희, 준경의 오랜 고민을 알게 된 그녀는 기차역에 신호등 설치라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준경은 이를 실행한다. 그리고 이 신호등은 마을 사람들의 자랑거리가 된다. 오매불망 안전한 마을역을 바라는 준경의 간절함이 닿았는지 대통령으로부터 간이역을 설치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그러나 예산의 부족으로 다시한번 벽에 부딪히고, 마을 사람들과 함께 직접 간이역을 짓는다. 그렇게 설치된 간이역, “양원역”에 기차는 서지 않는다. 오래전 사고의 휴유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준경은 이사를 갈 수도 없고, 자신의 꿈인 천체 과학자에 다가갈 수 있는 유학의 기회도 쉽사리 잡지 못한다. 이 이야기를 알게된 아버지는 미국유학이 걸려있는 시험에 그를 보내기 위해 기차가 서지 않는 간이역에 기차를 멈춘다. 시험을 치른 준경은 결국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어낸다.

우리는 종종 기적을 바란다. 좋은 일이, 내가 바라는 일이 내 눈앞에 펼쳐 지기를 바라며... 그런데 아마 기적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 아닐까?



『당신의 언어 온도는 몇 도 인가요?』

“말도 의술이 될수 있을까?”

병원에 들를 때마다 깨닫는 게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서 저마다 힘겨운 싸움을 벌이는 공간에선 언어가 꽤 밀도 있게 전달된다는 사실이다. 당연한 일이다. 우리가 절박한 상황에서 눈과 귀로 받아들이는 언어는, 잔잔한 호수에 던지는 돌맹이처럼 크고 작은 동심원을 그리며 마음 깊숙이 퍼져 나가기 마련이니까. 한 번은 나이 지긋한 의사가 회진 차 병실에 들어왔는데 그는 팔순을 훌쩍 넘긴 환자를 대할 때도 “환자” 혹은 “어르신”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박 원사님” “김 여사님”하고 인사를 건넸다. “환자에서 환이 아폴 ’환’이잖아요. 자꾸 환자라고 하면 더 아파요. 게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호칭 싫어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은퇴 전 직함을 불러드리죠. 그러면 병마와 싸우려는 의지를 더 굳게 다지시는 것 같아요. 병원에서는 사람의 말 한마디가 의술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의 무덤 언충”

필요 이상으로 말이 많아지는 이른바 다언증이 도질 때면 경북 예천군에 있는 언충이라는 ‘말 무덤’을 떠올리곤 한다. 마을이 흥흥한 일에 휩싸일 때마다 여러 문중 사람이 언충에 모여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으로 시작하는 쓸데없는 말과 “그쪽 걱정돼서 하는 얘기인데요..”처럼 이웃을 함부로 비난하는 말을 한데 모아 구덩이에 파묻었다. 말 장례를 치른 셈인데, 그러면 신기하게도 다툼질과 언쟁이 수그러들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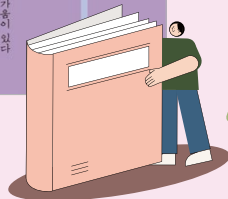
우리는 늘 무엇을 말하느냐에 정신이 팔린 채 살아간다. 하지만 어떤 말을 하느냐 보다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하고, 어떻게 말하느냐 보다 때론 어떤 말을 하지 않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다. 입을 닫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는 잘 말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다언이 실언으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으려 한다.”

“헤아림 위에 피는 위로라는 꽃”

위로의 표현은 잘 익은 언어를 적당한 온도로 전달할 때 효능을 발휘한다. 짧은 생각과 설익은 말로 건네는 위로는 필시 부작용을 낳는다. “힘 좀 내”라는 말만 해도 그렇다. 이런 멘트에 기운을 얻는 이도 있을 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

힘낼 기력조차 없는 사람 입장에선 “기운 내”라는 말처럼 공허한 것도 없다. 정말 힘든 사람에게 분발을 종용하는 건 위로일까, 아니면 강요일까? 동사 ‘알다’가 명사 ‘알’에서 파생했다고 한다. ‘아는 행위’는 사물과 현상의 외피뿐만 아니라 내부까지 진득하게 헤아리는 걸 의미한다. 이를 사람에 대입해 봤으면 한다. 우린 늘 누군가를 안다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한 두 번 대화를 나누거나 우연히 겸상한 뒤 “그 친구 말이야”, “내가 좀 알지” 라는 식으로 쉽게 내뱉는다.

하지만 제한된 정보로는 그 사람의 진면목은 물론 바닥도 알 수 없는 법이다. 상대의 웃음 뒤 감춰진 상처를 감지할 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 뿐 아니라 싫어하는 것 까지 헤아릴 때 “그 사람을 좀 잘 안다”고 겨우 말 할 수 있지 않을까?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위에 피는 꽃이다.



언어의 온도

the temperature of language



언어의 온도
원제 言葉の溫度 | 저자 이기주 | 말글터 | 2016년 출간

99

언어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의 정도가 저마다 다릅니다. 한순간 우리의 마음을 공공 얼리기도, 그 공공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 주기도 합니다. 온기 있는 언어로 다른 사람의 슬픔을 감싸 안아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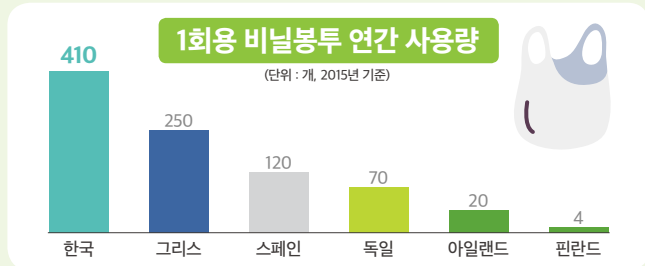
살구와 함께 으쓱 (ESG) 캠페인

더 깨끗한 미래를 위해 지구를 지키는 사서원의 으쓱 캠페인에 동참해주세요!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Plastic bag free day)

4월 22일은 지구환경보호의 날, 6월 5일은 환경의 날,
7월 3일은 무슨 날일까요?

바로 ‘세계 1회용 비닐봉투 없는 날’입니다. 2008년 스페인의 국제환경단체 ‘가이아’가 제안해 만들어진 날로 우리가 흔히 쓰는 비닐봉투를 단 하루만큼은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날입니다! 매년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시민 단체가 동참하여 40여개 국에서 동시 실시되며, 우리나라에서는 자원순환사회연대가 매년 캠페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인당 1회용 비닐봉투 연간 사용량은 410여개,

전체 1회용 비닐봉투 연간 사용량은 211억 개(2015년 기준) 우리나라는 비닐봉투 중독인 걸까요? 비닐봉투는 상자, 종이갑, 병 등에 비해 상품 포장 후 총 부피를 내용물 크기로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비닐의 특성상 자연 상태에서 분해가 어려워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에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또한 일회용 비닐봉투는 석유로부터 원료를 추출해 만들어지며, 사용한 비닐봉투를 소각할 때는 다이옥신이라는 유독 물질이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합니다. 더불어 해양에 미치는 영향까지 생각해보신적 있으신가요? 비닐봉투로 인한 해양 오염과 더불어 해양 동물이 바다에 휩쓸려오는 비닐봉투를 먹이로 착각해 먹거나 비닐봉투로부터 벗어나지 못해 죽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7월 3일, 지구를 위한 하루!
지구를 위해 시작하는 하루! 환경과 자연보호를 위해 장바구니를 꼭! 챙겨다니기로 약속해요.



청렴 Q & A

맑고 투명하게, 언제나 공정하게! 함께 만들어요.
청렴한 광주, 청렴한 사회서비스원!
알아두면 유용한 청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보자.

공직자가 궁금해하는 청탁금지법 10가지!

Q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선물을 하면 안되나요?

A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Q 공직자의 배우자는 회사에서 주는 선물도 받을 수 없나요?

A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받아도 됩니다.
ex) 건강검진 혜택, 명절선물 등

Q 인사고충 상담도 부정청탁인가요?

A 승진, 처우 등 단순한 상담은 부정청탁이 아닙니다.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는 요구가 부정청탁입니다.

Q 직무와 관계없는 금품도 받으면 안되나요?

A 직무와 관련없는 금품은 1회 5만원 이상(1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Q 직무와 관련하여 3만원 이하의 식사는 무조건 허용되나요?

A 원활한 직무수행, 사고, 의례 등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원활한 직무수행의 목적이란?

- 통상적인 업무회의, 간담회, 자문회의 등의 경우 목적 인정
- 인허가신청인, 지도·단속대상자, 입찰 상대방, 고소·고발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등은 목적 불인정

Q 직무와 관련한 식사 3만원 제한, 하루 기준인가요?

A 식사는 1회가 기준입니다. 단, 시간과 장소가 가깝게 이어질 때는 합산 3만원을 넘어선 안됩니다.
ex) 1차 식사, 2차 술자리가 이어지는 경우

Q 식사와 선물을 동시에 받을 때에는 8만원까지 인가요?

A 식사자리에서 선물을 받을 경우, 식사는 3만원, 전체 총액은 5만원을 넘을 수 없습니다.

Q 선물을 바로 반환하면, 신고는 안 해도 되나요?

A 선물을 반환하였더라도, 해당 사실을 지체없이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경위, 금품종류, 반환여부 등을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신고)

Q 친목모임에서 주는 경조사비도 받아선 안되나요?

A 공직자가 회비를 납부해 온 친목모임의 회칙에 따라 회원에게 주는 경조사비는 받을 수 있습니다.
ex) 직원 상호회, 동호회, 동창회, 향후회, 친목회, 종교단체 등

Q 대가를 받지 않은 외부강의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나요?

A 외부강의에 해당되면, 사례 여부와 관계없이 사전에 신고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상·시·고·객 제안제도



상시 고객제안제도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귀는 항상 광주 시민들과 광주사회서비스원을 응원해주시는 여러분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하나하나로 더 나은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집기간 연중수시

제출자격 광주사회서비스원에 관심있는 누구나

모집내용 광주사회서비스원의 발전과 관련된 모든 사항

제출방법

- 홈페이지
- 우편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8층(우체국보험광주회관)
- 팩스 : 062-607-5219
- 방문접수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110, 8층 경영기획실

관련문의 경영기획실 062-607-5200



“아이부터 노인까지 행복하게 잘 살(狗)”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부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Gwangju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6194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0 우체국보험회관 8층

TEL 062.607.5200 FAX 062.607.5219 <https://gwangju.pass.or.kr>